



정교회 주보

한국 정교회 대교구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Tel (02) 362-6371
Fax (02) 365-2698
orthodoxkorea.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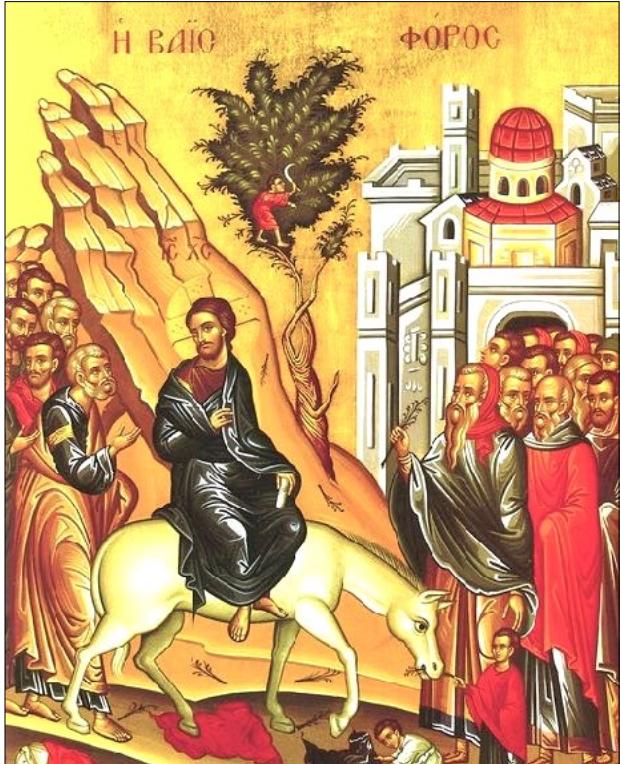


성지 주일

성 아드리아노스 순교자
성 마카리오스 고린토 주교

(축일 조과에서)

- 조과 복음 : 마태오 21,1~17
- '그리스도를 본 후에...' 는 생략
- '엑사뽀스틸라리온'은 '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만 3번 부름
- 이어서 '종려나무 가지 축성 기도'
(각종 예식서 371쪽 참조)
- '대영광송' 다음에 '성지주일 찬양송'을 부른다.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성지 주일 제 2 응송 ----- 239
- 성지 주일 찬양송 ----- 239
- 성지 주일 입당송 ----- 239
- 성지 주일 시기송 ----- 239
- 사도경 : 필립비 4,4~9 --- 239
- 복음경 : 요한 12,1~18 --- 240
- 성지 주일 성모송 -----
 비고정 축일 성가집 67
- 성지 주일 영성체성혈송 -- 241
- '주의 이름이' 대신
 성지 주일 찬양송 --- 239

신랑 의식 거행

호산나! 찬미받으소서

예 수님께서는 과월절을 닷새 앞두고 베다니아를 떠나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그때 두 제자를 보내 어린 나귀를 가져오게 하시고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

그리스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 길 위에 펴놓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하였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이렇게 흔든 푸른 가지는 악마와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이고 '호산나!'는 "구원하소서!"라는 뜻이다.

성지 주일은 이와 같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한다.

자선과 가족

크리스토퍼 무어 신부

40 일간의 대사순절을 마치면서, 우리는 인간의 타락한 상태로 인해 깊이 마음 아파하시는 그리스도와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친구인 라자로의 죽음을 슬퍼하시며,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요한 11:35-38). 마침내 그리스도는 라자로를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기로 하십니다. 복음서의 다른 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극진히 사랑하심으로 인해 창자가 뒤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마태오 9:36 참조). 원어인 그리스어 οπλαγχνίζομαι[스플라흐니조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주로 ‘누군가를 불쌍하고 측은하게 여겨 마음이 몹시 아프다’라는 의미로 쓰이곤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대주간을 시작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적인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 죽음을 당하려 가시는 것을 보면서, 그분이 참으로 ‘박애주의자’, 곧 인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금 분명히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범과 이 대사순절 시기는 자선이 그리스도교 가정을 위한 또 다른 본질적 토대임을 알려줍니다. 자선은 물질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나 단체에 기부하는 것 이상의 어떤 것입니다. 자선은 다른 이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며, 상대를 존중하면서 서로 얼굴을 마주한다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배우며, 또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어떤 신부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외면하기보다는 그들에게 애정어린 자선을 베풀도록 가르쳐 줄 실제적인 공간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궁핍하고 어려움

에 처한 이들을 직접 대면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기부하는 것도 홀륭합니다. 그러나 몸소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 작은 시도를 하는 것이 자선을 훈련하는 기초입니다.”

그럼, 자선을 실천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1.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향한 말과 행동에서 너그럽고 관대해지십시오 (이것은 아이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자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님은 아이들이 부모님과 형제자매들을 어떻게 존중하며 공손히 대해야 하는지 가르칠 수 있습니다. 2. 사순절 기간에 식탁 위에 자그마한 단지를 하나 놔두고 온 가족이 그 안에 돈을 모으도록 합니다. 그리고 부활절이 지나고 그 돈을 지역의 자선단체나 교회에 기부합니다. 이때 아이와 함께 기부금을 직접 가지고 갑니다. 3.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주변에서 다른 이웃 사람을 몸소 도울 수 있는 작은 방법들을 찾아봅니다. 이를테면 어르신들을 찾아 뵙는 것과 공원을 청소하는 것, 학교나 성당에서 남을 도와주는 것 등입니다.

금식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단순하게 시작하는 것이며, 주위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우리 가족을 어떻게 성장시키실지 기대하면서 첫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해 가난한 이들과 나누는 것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도다. 금식과 함께 하는 자선은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하는도다.” (대사순절 두 번째 주간 목요일의 조과에서)

기도의 노력

아타나시아 봉사자



교 회는 부활을 준비하는 사순절 기간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권유합니다.

-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라는 것입니까?
- 각자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 그러면 무엇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 기도와 금식, 고백성사와 자선으로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집과 성당, 그리고 여러 모임에서 날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어떤 때에는 쉬운 것 같으나 어떤 때에는 아주 어렵습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는 쉬울 수 있겠지만, 마음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기도는 정말로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아토스 성산에서 어떤 방문객이 은둔 수도자의 동굴을 찾아갔다가 거기서 하룻밤을 묵기로 하였습니다. 그는 수도자들의 기도 생활이 그렇게 어려울 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힘든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니 편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방문객의 생각을 알고 있던 수도자는 오늘밤에 한번 해 보면 어떻겠는가 하고 권하면서, 정해진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허리를 깊이 굽히는 절을 하면서 꼼보스끼니(기도 할 때 쓰는 매듭으로 된 끈)의 매듭 하나하나를 넘기는 수도자들의 기도 규칙을 알려주었습니다. 방문객은 수도자가 가르쳐준 규칙대로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어 수도자가 물어보았습니다. “이 사람아, 그래 어떻게? 할만 하던가?” 방문객은 겸연쩍은 표정을 하고는, “수사님, 할 말이 없습니다. 언제 날이 샐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잠은 쏟아지지요. 온갖 사악한 악령의 생각들은 쳐들어오지요. 차라리 하루 종일 땅을 파는 것이 쉽겠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수도자는, “하하, 힘들이지 않고 되는 일이 있는가? 이 사람아, 기도도 마찬가지라네. 더군다나 순수한 기도는 말할 것도 없지. 그래서 기도의 열매와 은사 또한 그렇게 큰 것이라네.”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마음의 고통과 싸우면서도 굽하지 않고 더욱 열렬하게 기도하셨다. 그러는 동안 핏방울 같은 땀이 뚝뚝 흘러 땅에 떨어졌다.”(루가 22:44)

소식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부활절 예배

부활절 예배는 토요일 밤 8시에 한 번만 드립니다. 모두 성당에 오셔서 주님 부활의 기쁨을 함께 경축합시다.

■ 부활절 달걀과

꽃 봉헌 신청

부활절 달걀과 에피타피오스 꽃 장식 봉헌을 신청 받습니다. 성당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세례를 축하합니다

지난 4월 9일(토)에 임마누엘 이치우 교우가 세례성사와 견진성사를 통해서 정교인이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은총과 도움으로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순간까지 올바른 정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축하합니다.

■ 성당 대청소

오늘 성찬예배 후 부활절 맞이 성당 대청소가 이루어집니다. 모든 신자들께서는 함께 동참하셔서 주님의 거룩한 수난과 부활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성 대주간 및 부활절 예배 안내

4월 17일	성지주일	오전 8:45	조과,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오후 1:30	신랑 의식
4월 18일	성 대 월요일	오후 6:00	신랑 의식
		오전 9:00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
4월 19일	성 대 화요일	오후 6:00	신랑 의식
		오전 9:00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
4월 20일	성 대 수요일	오후 6:00	성유 성사
		오전 9:00	대만과, 성 대 바실리오스 성찬예배
4월 21일	성 대 목요일	오후 6:00	주님의 거룩한 고난 의식 (12 복음 봉독)
		오전 9:00	대시과 (1, 3, 6 시과)
4월 22일	성 대 금요일	오후 3:00	9시과, 만과, 주님을 십자가에서 내리는 의식
		오후 6:00	에피타피오스 의식
4월 23일	성 대 토요일	오전 9:00	대만과, 성 대 바실리오스 성찬예배
		오후 8:00 ~ 10:30	부활절 의식 및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4월 24일	부활주일	오전 11:00	사랑의 대만과

(지역 성당 예배 시간은 해당 성당에 문의 바랍니다)

성인의 가르침

성 마르코스

사막의 은수자

- 고통 없이 덕을 쌓는다는 말은 하지도 말라. 왜냐하면 덕이라는 것은 편안 속에는 있지도 않다.
- 물과 불이 상극인 것처럼 변명과 겸손은 서로 어울릴 수 없다.
- 기도는 덕의 어머니이다. 그리스도와 기도로 연결되어 덕을 낳는다.